

‘위기의 코레일’... 잇따른 사건·사고에 재해 대책 무용론

직원 사망·무궁화호 탈선, 중대재해법 위반 정조준 철도연구원 출신 나희승 사장 리더십도 도마위 올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잇따른 사건사고로 곤경에 처했다. 2018년 강릉선 KTX 탈선사고 이후 뜸했던 사고가 최근 속출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로 코레일의 안전 사고 예방과 재해대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7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8시 52분께 용산역을 출발해 익산역으로 향하던 무궁화호 제1567열차가 영등포역 진입 중에 6량이 궤도를 이탈했다.

이 사고로 승객 275명 중 20여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튿날 오후까지 KTX를 포함한 열차 무정차 통과, 운행중단, 지연 등으로 상당시간 고객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코레일은 지난 4일 나희승 사장이 주재하는 안전확보대책회의 열여 열차안전운행을 다짐했지만 사고를 막지 못해 철도전문가란 평가에 의구심도 생기고 있다.

지난 5일 오후 8시 20분께는 경기 의왕 오봉역에서 차량 정리 작업 중이던 코레일 직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오봉역 구내의 양회(시멘트) 선에서 차량 정리 작업(입환) 중 오봉역 수송담당 30대 역부

원이 화차에 접촉되어 사망한 것으로 고용노동부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때에도 코레일은 고인과 유족에 사죄한 뒤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긴급 안전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탈선사고는 올해 또 있었다. 지난 1월 5일 낮 12시 58분께 경부선 영등역과 김천구미역 사이 충북 영동터널 부근에서 서울발 부산행 KTX-산천 객차 1량이 궤도를 이탈해 승객들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지난 3월 14일에는 대전차량사업소에서 열차 하부를 점검하던 50대 노동자가 쓰러진 채 발견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객차와 레일 사이에 끼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사고의 책임을 물어 고용노동부는 나 사장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으로 나 사장이 공공기관장 중에서는 처음으로 입건된 사례로 전해지면서 코레일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

국토부는 코레일에서 모두 4차례의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국토부는 고용부와는 별도로 코레일에 대한 감사를 비롯해 강도높은 안전대책

수립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6일 발생한 무궁화호 탈선 사고에 대해 즉각 원희룡 장관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코레일은 이제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고 질책한데서 국토부의 입장이 뚜렷히 드러난다.

이로 안전강화에 부상을 떨고 있는 코레일이지만 잇따른 사고에 대한 책임과 기존 대책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해 졌다.

◇코레일 대대적 수술필요, 근본적 변화 꾀해야

지난 1월 궤도 이탈사고 당시 코레일은 사고 열차와 동일한 기종의 운행을 잠정 중단하고 비퀴를 모두 교체했다. 또 신호체계부터 인적교육 강화까지 여러 대책을 내놨다.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둔 지난해에는 철도사고와 장애를 줄이기 위한 ‘차량 정비역량 강화 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핵심으로는 차량 정비역량 강화 방안으로 차량교장의 원인별 관리 강화와 유지보수 기술력 향상, 지역별 전문 정비기지 마련 및 차종별 정비조직 최적화를 들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출신의 나희승 사장은 행정관료와 정치인이 거쳤던 코레일 수장 자리에 ‘철도전문가’란 수식어를 달고 취임했다.

지난해 11월 그도 취임서서 “글로벌 최고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경부선 하행 영등포역 인근 선로에서 작업자들이 탈선 열차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앞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영등포소방서에 따르면 6일 오후 8시55분께 용산에서 익산으로 향하던 무궁화호 제1567열차가 영등포역 진입중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준의 철도안전은 목표로 능동적인 총력 방역체제로 탄탄한 철도방역 안전망을 구축하고,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유지 보수와 예방중심의 선제적 안전 관리로 세계를 선도하는 철도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취임 뒤 탈선을 비롯해 직원 사망 사고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나 사장의 전문성과 리더십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다육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노후된 열차를 새로운 열차로 교체하고 유지·보수 등 안전을 위해 예산도 기존 대비 1조 원 가량을 증액시킨다고 코레일은 강조했으나 줄었던 사고가 오히려 속출하고 있어

기존 대책의 무용론과 함께 대대적인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노사간의 마찰도 현명하게 해결해야 한다. 현재 철도노조는 총투쟁 결의에 나서면서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근로자 권익향상이 주 이유지만 파업으로 인한 열차운행 지장은 물론 운행안전성 저하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파업에 앞서 노사간 심도 깊은 양측 간 협력지향적 안전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고와 관련해 유관기관과 철저한 원인조사를 거쳐 긴급 안전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용산구청장·용산경찰서장·용산소방서장 등 6명 피의자 전환

업무상 과실치사상·직권남용·증거인멸 등 혐의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에 나선 경찰청 특별 수사본부(특수본)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태원 전 용산경찰서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6명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특수본은 전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박 구청장과 이 서장, 최 서장, 류미진 서울경찰청 당시 상황관리관,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계장 등 총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전 서장과 류 총경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고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계장은 직권남용, 증거인멸,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다. 박 구청장과 최 서장의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

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약 1시간30분 동안 지휘를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오후 9시께까지 용산 대동령실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 현장을 통제하다가 뒤늦게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9시57분에서 10시 사이 관용차량을 타고 녹사평역 인근까지 갔지만 교통 정체로 진입이 어려워 근처 일대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오후 11시15분께야 현장에 도착했다.

류 총경은 사고 당시 상황관리관으로서 상황관리를 총괄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해 상

황 인질 및 보고를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계장은 헬리콥터 기간 인파 집중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담긴 정보보고서를 보고받고도 상부에 전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는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직원을 회유하고, 보고서를 삭제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재난 책임 관리 기관의 장으로서 유관기관 협조 요청 등 사고 예방과, 인파 밀집 예견 가능성 등을 파악했는지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또 최 서장에 대해서는 당시 소방의 경찰 공동 대응과 119 현장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김재환기자

광주노동청,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점검

다음달 2일까지 지도·점검 예정

광주고용노동청은 노동기본권 보호·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32곳에서 지도·점검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 사업장은 ▲외국인 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 ▲전년도 점검 시 위반 사업장 ▲입국 초기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신고 사건 제기 사업장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취약 업종 농·축산업과 어업에 점검 역량을 집중, 핵심 근로 조건 준수 여부를 주로 살핀다. 또 ‘주거환경 개선 지침’ 등에 따른 주거 시설 제공 여부와 숙식비 부담 상태 등도 집중 점검한다.

폭행, 강제 근로, 직장 내 성희롱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통역원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대상 면담조사를 진행한다.

광주노동청은 점검을 통해 임금체불, 최저임금·근로시간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에는 고용허가 취소·제한 등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

또 행정 지도와 홍보를 통해 고용허가제가 적정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주 인식 개선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황중철 광주고용노동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근로 조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고 보다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재본부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털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